

退溪의 序跋文

沈 慶 昊*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敦實恪謹 |
| 2. 퇴계의 서발문 | 5. 考據覈實 |
| 3. 恬退求志 | 6. 맺는말 |

1. 머리말

退溪 李滉은 程朱學을 기반으로 하면서 居敬을 실천한 학자다. 그는 당시의 문학과 학문 일반을 場屋文學, 문장가의 문학, '吾儒의 學問路脈'의 셋으로 준별하고, 1) 講明道學을 하지 않고 경전을 決科取祿之資로 삼는 場屋文章을 개탄하였고, 2) 문장가의 문학도 비판하였다. 심지어 佔畢齋 金宗直에 대하여도 "시문으로 第一義를 삼았을 뿐이고 此學 此道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3)고 말하고, 또 조선조에 文章鉅公이 여럿 나왔지만 詩文·賦詠·小說·談諧 이외에 斯文의 저술이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읽어보면 마음에 의심이 없을 수 없다 하고 4), 오직 晦齋 李彦迪만이 흥중으로부터 유출하여 義理가 明正한 글을 남겼다고 하였다. 5)

하지만 퇴계는 陶淵明·杜甫·朱熹의 시를 좋아하였으며, 목판본 문집에 전하는 것만 보아도 2,013수에 달하는 시를 남겨서, 典實莊重簡淡한 풍격으로 自成一家하였다. 6) 또한 六經을 근본으로 삼아 華實을 겸하고 文質이 온당한 글을 지어,

* 고려대학 한문학과 교수

1) 「退溪集」속집(1764년 도산서원 목판본,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영인 수록. 이하 「퇴계집」의 인용은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에 의함), 권6 「與權章仲」, “如此不改, 非唯於吾儒學問路脈甚遠, 亦恐文章家爐錘, 亦不堪當得, 非唯文章家, 下至場屋文字, 亦不可以此手段求之.”
2) 「退溪集」권41 「策問」.
3) 「退溪集」권23, 「答李剛而 別紙」, “今以佔畢公全集觀之, 惟以詩文爲第一義, 未嘗留意於此學此道.”
4) 「退溪集」권12 「與朴澤之」, “吾東方文獻寥寥, 雖間有文章鉅公, 出而鳴世, 自詩文賦詠小說談壑之外, 斯文著述, 絕無而僅有 其幸有之者, 及得而讀之, 或不能無疑於心者.”
5) 「退溪先生言行通錄」권5 의론 제4 「論人物」, “吾東方, 不無道學之士, 而文獻無徵, 其所造深淺, 無從考見, ……以可徵者而言之, 則近代晦齋之學甚正, 觀其所著文字, 皆自胸中流出, 理明義正, 渾然天成, 非所造之深, 能如是乎.”
6) 「退溪先生言行錄」권6 「言行通述」, 鄭惟一撰 “先生喜爲詩, 樂觀陶杜詩, 晚年尤喜看朱子詩

그의 산문은 “雄渾而典雅，清健而和平”하다고 평가받는다.⁷⁾ 다만 그는 시문이 도학자의 기상을 해치지 말고 進德修業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梅溪 曹偉가 『臨清臺記』에서 “오직 군자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浩然한 至大至剛의 기상을 기른 뒤에야 窮厄의 때에 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천명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내가 이 누대에서 즐기는 것이 아마 천명을 아는 것에 가까운 것인지 모르겠다”⁸⁾라고 자부한 것을 두고 ‘유자로서의 學問義理 一段의 氣象’이 없다고 비평한 것이나,⁹⁾ 守菴 朴枝華의 『金剛錄』이 기이함을 추구하다가 마음과 학문의 放流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¹⁰⁾

퇴계는 산문 문체 가운데 行狀과 碑誌를 公器·公道로 인식하였다.¹¹⁾ 그래서 橋亭 尹衢가 지은 李仲虎의 碣文에, 己卯士禍 이후 『小學』이 금지되었을 때 이중호가 홀로 根本工夫를 倡明하여 『소학』의 학문을 다시 興起시켰다고 논한 부분을 두고 ‘當年の 其人’을 서술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자신의 삶을 ‘處士’로서 규정하고 또 이해받고자 임종 뒤에 문을 誌石의 銘을 스스로 지어 두었다. 심지어 퇴계는 靜菴 趙光祖와 晦齋 李彦迪의 行狀을 찬술하면서도 ‘捏虛誇能’을 해서는 안 되고 실상을 전하여야 한다는 뜻이 단호하였다.¹²⁾

또한 퇴계는 陶山에 卜居하기 이전에는 산수유람과 臥遊를 통하여 은일의 생활 속을 꿈꾸고 智水仁山의 경지를 추구하였다.¹³⁾ 퇴계는 유유자적할 隱逸의 공간을 陶山에 마련하기 이전에는 名山異境을 찾아 方外에 노닐어, 六根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天遊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바램을 1548년(명종 3)에 단양 군수로 있을 때에 龜潭이라는 승경을 새로 발견하고 지은 「丹陽山水可遊者續記」와 1549년

其詩初甚清麗，既而剪去華靡，一歸典實莊重簡淡，自成一家。”

- 7) 『退溪先生言行錄』권6 「言行通述」 鄭惟一撰 “爲文本諸六經，參之古文 華實相兼，文質得中 雄渾而典雅，清健而和平 要其歸則又粹然一出於正。”
- 8) 『梅溪集』(한국문집총간본) 권5 「臨清臺記」, “惟夫學君子不憂不懼之術，養浩然至大至剛之氣，然後爲能不變窮厄之際，可言知命矣。余慕陶學孔孟者也，竊有志於此久矣。抑不知余之樂於斯臺者，其庶幾知命者乎?”
- 9) 『退溪集』권22 「答李剛而」, “臨清一記……詳考其語意，與所自稱述者，只似從文人騷客懷抱中來，略無儒者學問義理一段氣象。”
- 10) 『退溪集』권35 「與金舜舉」, “所可疑者，其文壘疊乎似有好奇尚異之意，故談山必及於域外荒茫無當之說。……論學必涉於事外遼闊不貼之證……是以總其全體，而取其好處，則能使人鼓舞踊躍之不暇，就其中而細考之，往往不免使人聽瑩而滋惑，詰屈而難讀也。夫遊名王者，其說固主於奇，然其奇也，各有分劑，其言也，各有攸當，若每喜於詭論，而或爲之強說，則其勢必至於心蕩而不返，學流而爲異，如莊釋之倫，是也，故鄙意，須兼此等盡去之，然後方爲盡善也。”
- 11) 『退溪集』권15 「答許太輝」, “文章公器，當取其可傳者傳之。” 『退溪集』권21 「與李剛而」, “大抵文章公道，何可以情面而苟爲之耶?” 『退溪集』속집 권3 「答宋台叟」, “文章公器，豈可一時緣情遷就，貽譏後世乎?”
- 12) 퇴계의 문학이 지닌 守靜과 觀照自然의 특징에 대하여는 줄고, “退溪의 守靜과 觀照自然”, 김형효 외 『退溪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상가대제 4, 1997. 7) 참조.
- 13) 줄고, “退溪의 山水遊記”, 『退溪學研究』제8집(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7. 1).

(명종 4)에 풍기 군수로 부임하여 소백산을 유람하고 그 자초지종을 적은 「遊小白山錄」에서 담박하게 드러내었다.¹⁴⁾

퇴계의 산문은 깊이가 있고 이론이 정제되어 있으며, 남의 글을 평하고 비판할 때에 겸손하면서도 확연하다. 긴 기간의 체험과 축적을 쌓아 진리를 내면에 축적하는 가운데 참된 앎에 이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활연관통의 묘경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¹⁵⁾

한편 퇴계는 詩帖과 遊錄의 편찬, 서적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序跋文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학문의리의 일단을 중시하고 내면의 체험을 높은 이상으로 삼았던 퇴계의 문학관이 서발문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2. 퇴계의 서발문

퇴계가 남긴 서발문은 「天命圖說後敍」를 비롯하여 수편에 달하는데, 그 글들은 현종 연간 간행의 목판본(중간본) 원집의 권41, 권42, 권43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¹⁶⁾ 즉 「天命圖說後敍」·「心經後論」·「白沙詩教傳習錄抄傳因書其後」·「抄醫閻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이상 권41),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後」·「朱子書節要序」·「啓蒙傳疑序」·「成王皇華集序」(이상 권42), 「書周景遊題金季珍詩帖後」·「書丹陽館宇山水題詠錄後」·「書漁父歌後」·「書晦菴詩帖後」·「周景遊清涼山錄跋」·「書金季珍風詠亭詩帖後」·「三朝御書帖跋」·「延平答問後語」·「書許監察所藏養生說後」·「書易範諸圖屏後」·「內賜性理羣書付盧上舍遂俾藏圃隱書院識」·「書啓蒙圖書切要後」·「延平答問跋」·「題南季憲彥紀箴銘後」·「魚灌圃詩集跋」·「書曹南冥遊頭流錄後」·「題萬竹山房集帖跋」·「傳道粹言跋」·「泗水李氏壽瑞詩編跋」·「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跋金景嚴箴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陶山十二曲跋」·「箴銘諸訓跋」·「書巡陵送別詩帖」·「書李大用研經書院記後」·「養心堂集跋」·「新刊啓蒙翼傳跋」(이상 권43) 등이다.

서발문은 고문 창작의 성과로 산문 체제가 현전히 발전하게 된 唐宋八大家에게서 주요한 산문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당송팔대가로 대표되는 고문가들은 傳記 散文을 다루어 지었고 논변체 산문 가운데 論·議·說·辯·解·原 등 형식을 완비하였으며, 창작물이 대량으로 나오고 각종 문집들이 편집 간행됨에 따라 序跋體 산문도 많이 짓게 되었다. 남을 위해 서문을 짓는 예로는 韓愈의 「張中丞傳後敍」,

14) 「丹陽山水可遊者續記」, 『퇴계집』 권42 「記」, 「遊小白山錄」, 『퇴계집』 권41 「雜著」.

15) 李光虎, “李退溪의 哲學思想이 丁茶山의 經學思想 形成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退溪學報』 90(퇴계학연구원, 1996 6), p.53

16) 퇴계학연구소 영인의 필사본 『퇴계선생전서』에서는 권58, 권59, 권60에 수록되어 있다.

歐陽脩의 「蘇氏文集序」·「梅聖俞詩集序」·「釋秘演詩集序」, 曾鞏의 「戰國策目錄序」 등이 유명하다. '서'체 산문은 관련 작가를 소개하고 시문을 평론하는 문장이므로, 설명하는 문자 이외에 서사·의론·서정을 겸하는 일이 많다. 어떤 때는 한 편 속에 여러가지 수법을 겸하기도 한다. 歐陽脩의 「五代史伶官傳序」는 의론을 위주로 한 명편인데, 첫머리를 강렬한 감탄으로 시작하여 開門見山式으로 글 전체의 主旨를 제시하고 역사사실을 상세히 기술하되 '盛衰' 두 글자의 주위에 전체 글의 주지를 응집시켰다. 서술과 의론을 적절히 섞고 또 史論을 결합하여 한층 또 한층 심화시켰으며,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고 長短不齊의 句를 뒤엎어 굴곡이 있고 기세가 왕성하다. 한편 한유의 「張中丞傳後敘」는 李翰의 「張巡傳」을 읽은 뒤에 張巡과 許遠이 안록산과 맞싸운 사실을 보충기록하고, 장순과 허원의 공적 및 기백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서술과 의론을 적절히 섞는 작법을 채용하여, 전반부에서는 장순과 허원의 사적을 비난한 속설을 정면에서 재비판하고, 후반부에서는 卞·徐 땅에 사는 노인들로 南霽雲의 사적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추가로 서술하여 극히 실감이 있다.

'跋'은 '序'와 같되, 책의 뒤나 글의 뒤에 놓이며, '서'보다는 약간 간단한 것이 보통이다. 唐 이전에는 '서'를 책 앞에 둘 수도 있고 책 뒤에 둘 수도 있어서, 책 뒤에 두는 것을 '後序'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 '발'이 출현하였다. 歐陽脩는 「集古錄跋尾」 240여편을 남겼다. '발'이 출현한 이후 '서'가 보통 책의 앞에 놓이는 반면에, '발'은 책의 뒤에 놓여 '書後'·'題後'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발'은 '서'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작 요구도 그만큼 '서'와는 차이가 있다. 徐師曾은 『文體明辨』에서 "그 글은 옛것을 고찰하고 지금을 증거하며, 의심을 풀고 오류를 정정하며,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폄하하여 법을 세우고 경계를 드리워 각각 목적이 있되, 오로지 簡勁함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 구양수의 「唐韓愈盤谷詩序跋尾」는 考據의 성격의 '발미'로, 문물의 진위, 문물의 내용적 가치들을 고찰하고 정정하였다.

이 서발체 산문은 결국 작가가 반드시 서발을 붙이는 책과 서발을 붙이는 사람에게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어야만 논리가 정연하고 깊이 있는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퇴계의 서발문은 바로 그러한 요건을 잘 지키고 있다.

퇴계는 내면의 절실한 요구 없이 남을 위해 서발문을 써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다만 풍기군수로 있을 때 상주 목사로서 자주 왕래한 일이 있는 金彦据(자 季珍)를 위하여 「書金季珍風詠亭詩帖後」를 써준 것이 예외라면 예외일 수 있다. 퇴계는 뒷날 "나는 그자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하여,¹⁷⁾ 김언거를 좋게 평하지는 않았다. 김언거의 풍영정 시첩에 발문을 써 준 것은 자신이 김언거의 시에 절구

17) 「要存錄」 인용 『言行錄』 "彼時不知渠是這樣人"

두 수를 화운한 이후에 무려 數十餘家가 화운하여 “皆極一時文章之選”하였다는 성대함을 높이 친 때문은 아니었다.

그대와 내가 모두 일찍이 한번 떠났다가 다시 왔으므로 마음과 일이 어긋나서 漆水の 물새를 놀라게 하고 屏山の 학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같다. 그런데 병이 깊고 쇠락하여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이거늘 떠나지 않으며, 옛 학업은 더욱 황폐해가고 새 지식은 진보하지 않는 부끄러움은 내게 있어 아주 심하다.¹⁸⁾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권계의 뜻과 자기에 대한 반성이 앞섰기에 이러한 발문을 남긴 것이다.

한편 「泗水李氏壽瑞詩編跋」은 龜巖 李楨(자 剛而)의 선조를 위해서 壽瑞를 읊은 시첩에 쓴 발문인데, 이 글에서도 퇴계는 자신이 20년전에 그 편축에 ‘僭題姓名’하였던 일을 추억하고 반성하면서 한편으로 李氏一門의 慶福을 선망하고, “滉孤露微喘, 苟存斯世, 恒抱臯魚之悲, 三復是編, 不覺涕泗之交襟”이라고 하는 퇴계 자신의 서글픈 심경을 우탁하였다.

퇴계의 서발문은 역사를 논하거나 당대의 인물을 論定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遊山錄에 대한 발문이나 詩歌集과 詩帖에 대한 서발문, 주자학 관련 서적의 抄錄 및 刊行 경위를 밝힌 서발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퇴계의 서발문은 남을 위한 글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내면 뜻을 밝히고 眞知에로 나아가는 지성의 운동을 담은 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恬退求志

退溪는 산수 유람 뒤에 시문을 輯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丹陽館宇山水題詠錄』의 後序에서 퇴계는

내가 이 권을 다 輯錄하고 난 뒤에 손님 가운데 보고서 냉소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듣기에, 군자라면 더럽혀져서는 안되고 참[眞]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소. 그런데 卷 안의 시문은 美惡을 가리지 않고 工拙을 따지지 않고서 모두다 수록하여, 魚目이 隋珠와 뒤섞이게 하고 砒砒가 良玉을 가리게 하였으니, 어찌 그대는 이렇게 藻鑑이 없이 잡다하게 많이만 모은단 말이오? 刺藤[종이]의 재액이 너무 심하지 않소” 내가 恐縮하여 말하길, “정말 그렇소. 그대가 나를 질책하는 것은 정말

18) 君與我嘗一去而復來, 心與事違, 使漆水鷗鷺, 屏山鶴怨, 則同矣, 而疾病衰頹, 當去不去, 舊業益荒, 新知不進之愧, 則在僕甚焉

웁소. 정말로 내 잘못을 알겠소.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 美惡·工拙 때문에 덜고 취하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 사이에 이름을 걸 수 있겠소.” 손님은 웃고 떠났다.¹⁹⁾

라고 하여, 자신의 시문이 惡하고 拙하다고 겸손해 하였지만, 遊山水 때의 직접 체험을 담은 시문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내비쳤다.

퇴계는 1553년(명종8) 가을에 洪仁祐(應吉)의 『遊金剛山錄』를 두고 序를 지어, 方外之遊로서의 산수 유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²⁰⁾

세상 선비들 가운데 진실로 방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모두 한번 이 산을 엿보고 싶어하지만 朝市에 眷戀하여 雲霞가 懸遊하므로, 岷嶺을 상상하는 일을“그저 수고로이 할 뿐이며 仇池의 꿈도 파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다행히 한 두사람 직접 가서 유람하는 자가 있더라도, 능히 기이하고 장대한 광경을 궁극에까지 다 보아 온 산의 요령을 얻고 한 구역의 鉅麗를 다하는 자는 대개 드물다. 무릇 名山異境은 실로 천지의 秘藏이요, 靈眞의 窟宅이니, 어찌 사람마다 모두 엿볼 수 있겠는가?²¹⁾

名山異境을 窮盡하는 方外之遊를 실행한 사람들의 遊錄은 同遊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臥遊의 자료를 제공한다. 퇴계는 같은 글에서, 遊錄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친구 洪應吉 上舍는 學問하는 여가에 고아하게도 超世의 趣味가 있었다. 금년 여름 4월에 許國善·南時甫 上舍들과 관동 유람의 약속을 하고서, 우선 이 산을 찾아 登覽하였다. 그리고서 叢石亭을 거치고 鏡湖에 배를 띄워, 嶺海의 사이에 徜徉하고 흥만되어 얻었고 호연히 돌아왔다. 나는 그들과 함께 유람하지 못하여 찢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오자, 빨리 遊錄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여 읽어 보았다. 이에 관동의 산수가 천하의 壯觀이란 사실을 더욱 탄복하게 되고, 洪君이 遊山의 妙와 觀水의 術을 터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금강산이란 어떤 산인가 하면, 造物主가 온갖 技藝를 다 펼쳐서 이룩한 것으로, 岡巒이 잇대었고 洞壑이 횡행그레 벌어져, 鬼神이 가르고 펼쳐놓은 듯하여, 천변만화해서 그 궁극을 헤아릴 길이 없으며, 스

19) 『書丹陽館宇山水題詠錄後』. “某既輯錄此卷, 客有見而嗤之者曰, ‘吾聞君子不合滄而能識眞, 卷中詩文, 不擇美惡, 不論工拙, 俱收而並錄, 使魚目混階珠, 砒砒掩良玉, 何子之無藻鑑而太多可耶? 剡藤之厄, 不亦甚哉!’ 某瞿然曰, ‘有是哉, 子之數我也誠是矣. 吾固知吾之過矣. 雖然若以其美惡工拙而有所去取, 則吾安得託名於其間哉?’ 客笑而去.”

20) 『耻齋遺稿』 권2 「日錄鈔」에 보면 이 해 6월 초3일에 “景浩公, 自伴將事見, 余辭之. 有疾故也. 公求見我東遊詩稿, 余送之”라 하였고, 초5일에는 “景浩公遺館吏, 謄我東遊錄而去”라 하였다 이 ‘東遊錄’이 곧 ‘金剛山錄’일 것이다. ‘東遊詩稿’가 별도로 있었다. 홍인우는 1554년에 29세로 요절하였는데, 퇴계는 趙穆에게 홍인우의 ‘유산록’(『금강산록』)을 보내면서 有學有文의 홍인우가 不祿한 것을 애도하였다.

21)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序』. “世之士苟有志於方外者, 咸願一窺於此山, 而朝市眷戀, 雲霞懸遊, 岷嶺之想徒勤, 而仇池之夢已罷者皆是. 其幸有一二之往遊, 能窮奇極壯而得一山之要領, 盡一方之鉅麗者蓋鮮矣. 夫名山異境, 實天地之秘藏, 靈眞之窟宅, 亦豈人人所能覩哉?”

처지나가듯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錯愕 睚眦하게 하여 동서를 분간 못하게 하므로, 결코 그 방불한 참 모습을 터득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이 '錄'은 열은 데서 깊은 데로 나아가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감에 모두 차례가 있어서, 山에 대하여는 그 脊脈을 다 변별할 수 있고, 물에 대하여는 그 源委를 궁구할 수 있다. 縱橫하고 往復하여, 맥락이 잡혀있고 조리가 서 있으며, 일백번 꺾어지고 일천번 돌아간 것을 하나도 놓치거나 빠진 것이 없다. 그렇기에 멀고 깊은 곳을 궁구하더라도 정신이 피로하지 않고, 험난한 곳을 거치고 나아가더라도 기운이 더욱 굳세다. 奧妙함을 즐기고 幽靜함에 탐닉하여도 玄虛함으로 떨어지지 않고, 奇怪를 좋아하고 詭璋를 숭상하여도 荒誕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絶頂에 올라 六sum을 어루만지고 冷風을 몰아 鴻濛에 초월하며, 鉅海의 물굽이를 보고 淸湖에서 탁영하여서, 感慨가 없어지지 않고 즐거움[樂]이 끝이 없는 것으로 말하면, 胸次에 얻은 바의 것이 어찌 그저 우뚝하게 높고 움푹하게 높은 데에 그치겠는가? 반드시 거기에 妙와 術이 있었으리니, 物의 형상화가 공교한 것과 승경을 기록함이 아름다운 것은 언급할 여유가 없을 정도이리라. 그런데 나는 여기서 또 느낀 바가 있다. 공자가 泰山에 오르고 흘러가는 강 가에서 탄식한 것이나, 주자가 南嶽에 오르고 武夷九曲을 찬영하였는데, 그 산과 그 강이 능히 성현의 즐거움을 이토록 깊이 발하게끔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평소 山水의 癖癖이 있어, 일찍부터 관동의 유람을 호모하였으나, 병에다가 반백[선]의 나이를 지나쳤으며, 塵埃에 局促하고 있으니, 나 또한 朝市에 眷戀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거늘 洪君이 두 사람과 뜻도 道도 서로 꼭 합하여서 이 壯遊를 실천에 옮기고 奇勝을 서술해서, 나의 뒤쫓기고 불평 쌓인 가슴을 펴주었으니, 어찌 나로서는 불행 가운데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登山臨水는 나날이 달일이 성인의 하신 바를 본받아야 할 터인데, 그대들은 이미 그것을 본받았다. 知가 미치고 仁으로 지킴은 이 산과 강의 둘에다 즐거움을 두는 이유이다. 내개 어찌 그대들과 함께 종신토록 힘쓰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몸소 역람하여 계합한 바는 夢想 속에서도 갈구하였던 바이니, 또한 부디 내게도 가르쳐 준다면, 정말로 다행일 것이다.²²⁾

- 22)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序」 “吾友上舍洪君應吉，學問之餘，雅有超世之趣，今年夏四月，與許上舍國善·南上舍時甫，相約爲關東之遊，首尋此山而登覽焉。已而，歷叢石，泛鏡湖，徜徉嶺海之間，充然其得，浩然其歸，余既以不得同遊爲慊，於其歸也，亟徵其遊錄而讀之，於是，益歎關東山水爲天下之壯觀，而洪君能得遊山之妙，觀水之術也〔而遊山之妙，觀水之術，惟洪君能得之也〕。夫金剛爲山，乃造物逞技之所就，岡巒洞壑，合沓瀕洞，鬼擘神擘，千變萬化，莫測其倪，使驟而觀者，錯愕睚眦，眩東迷西，曾不得其髣髴。今是錄也，自淺而造深，從卑而陟高，皆有次第〔次緒〕，於山必辨其脊脈，於水必究其源委，縱橫往復，羅絡條達，百折千回，無所遺〔漏〕，闕窮深極遠而志不倦，歷險履艱而氣彌厲〔歷險履艱而氣彌厲，窮深極遠而志不倦〕。悅奧妙，耽幽靜，而不墮於玄虛，好奇怪，尙詭璋，而不隣於荒誕。至其登絶頂而撫六合，馭冷風〔傍日月〕而超鴻濛，觀瀾鉅海，濯纒淸湖，而感慨不歇，樂之無窮，則其有得於胸次者，豈特巍然其高，坎然其深而已哉？其必有〔所謂〕妙與術存焉，而狀物之工，記勝之美，有不暇言矣。抑余於是〔此〕，又〔復〕有所感焉。（昔）孔子登泰山而歎逝川，朱子登南嶽而咏九曲，夫之山也〔與〕之水也，所以能深發聖賢之樂如此者，何耶？余生有山水之癖，夙慕關東之遊，病過半百，局促塵埃，亦朝市眷戀之一耳，而洪君與二子，志同道合，乃能爲壯遊述奇勝，以發我鬱積硯磊之胸〔累滯〕，豈非余不幸中之大幸歟？雖然，登山臨水，可以日月而效聖賢之爲者，諸君既效之矣。知及仁守，其所以有樂於斯二者，余與諸君，盍相與終身勉之哉？然則身歷之所契，乃夢想之所渴，其亦有以辱教之，又幸之幸矣。”

이 글에서 퇴계는 홍인우의 유산록이 “壯遊를 실천에 옮기고 奇勝을 서술하여, 나의 뒤켤기고 불평이 쌓인 가슴을 펴주었다”고 하였다. 불평이 쌓인 가슴[巖積礙磊之胸]을 펴는 일이 壯遊의 목적이자 유산록을 읽는 목적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樂山樂水의 산수유람과 유산록 독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퇴계는 遊山遊水에서 “奧妙함을 즐기고 幽靜함에 탐닉하여도 玄虛함으로 떨어지지 않고, 奇怪를 좋아하고 詭瑋를 숭상하여도 荒誕에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였다. 玄虛로 빠진다는 것은 潔身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荒誕에 빠진다는 것은 潔身에서 더 나아가 亂倫을 범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한 퇴계는 주세붕의 『유산록』을 백운동서원의 有司인 金仲文에게서 얻어보고 또 石菴寺의 현판에서 재차 읽고서 그 시와 글의 웅장하고 기발함을 예찬하였다. 그러면서 쓴 「遊清涼山錄跋」에서, 先廬에 가까운 청량산을 ‘輕出世路’하여 오르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였다.

안동부의 청량산은 禮安縣의 동북쪽 수십리 되는 지점에 있는데, 이황의 先廬가 그 도정의 반 쯤 되는 곳에 있어, 아침에 출발하여 산에 오르면 오정이 채 안되었을 때 山腹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경계상으로는 다른 지방에 있지만 실은 우리 집안의 산이다. 내가 어려서 부형들을 따라, 책상자를 등에 지고 이 산에서 독서를 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런데 고요한 속에서 경전을 궁구하는 데 별로 착력을 하지도 못하였거늘 가벼이 세상길에 나가서 바빠바빠 왕래하고 있으니, 沈慶之(南朝 宋의 인물)나 孔稚圭(南齊 때 인물)같은 무리가 곁에서 가만히 비웃고 기롱하고 있을 것이다. 머리를 돌려 仙山이 烟霞의 바깥에 玉立하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수십년 래에 산문에 발걸음을 옮긴 것이 겨우 한두번이었다.²³⁾

퇴계의 ‘산’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즐거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瞻仰之切’로서 정신적 가치 및 이상이 가탁되어 있다. 퇴계의 遊山은 私慾을 제거하고 인간 본성의 깊이를 구명하는 진도수업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퇴계는 遊山을 진도수업 과정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퇴계는 남명 조식이 1558년에 『遊頭流錄』을 지은 2년 뒤의 맹춘에, 그 글에 부친 발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曹南冥의 『遊頭流錄』은 놀러다니며 경승을 탐구한 것을 볼 수 있는 이외에도, 일에 따라 뜻을 부치는 데에 감분하고 격양한 말이 많아, 사람으로 하여금 늪스럽게 하여, 마치 그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듯하다. 그 “한번 햇빛을 쬐는 정도로

23) 「周景遊清涼山錄跋」, “安東府之清涼山, 在禮安縣東北數十里, 李滉先廬居其程之半焉。晨發而登山, 即日未午而腹猶果然, 是雖境分他邦, 而實爲吾家山也。滉少小從父兄, 負笈往來讀書於此山, 不知其幾也。靜裏窮經, 未甚得力, 而輕出世路, 屑屑往來之際, 沈慶之孔稚圭輩, 從旁而竊笑且譏。回首仙山玉立於烟霞之外, 數十年來, 假步山局, 才一二矣。”

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말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끊임없이 퇴보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다만 발 하나 까딱 하는 사이에 달려 있다”라고 한 말은 모두 지론이고, 이른바 “明哲의 행불행”이란 따위의 말은 참으로 천고영웅의 탄식을 자아내고 귀신을 어두운 속에서 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기이한 것을 좋아하므로 中道를 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 아! 자고로 산림의 선비는 거개가 이와 같았다. 이와 같지 않으면 족히 남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그 節拍氣味の 所從來와 같은 것에는 약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후세 사람 중에 반드시 능히 분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²⁴⁾

남명은 지리산을 수차례 여행하였으나, 명종 13년(1558), 57세 되던 해에 4월 10일(음력)부터 25일까지 16일간, 金泓·李公亮·李希顔·李楨 등과 함께 등정하였을 때에는 이 「유두류록」을 남겼다. 이 「유두류록」에서 나타나는 남명은 여행 시에 일어난 일을 수양 문제와 직결시켜 논하는 夾議의 방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남명이 유산기에서 修養의 문제를 시시처처 환기하고 있는 것을 두고, 퇴계는 “아! 자고로 산림의 선비는 거개가 이와 같았다. 이와 같지 않으면 족히 남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매 순간 義利之辯에 투철하고 善惡翻轉의 살벌한 광경 속에서 善의 一端을 확립하고자 猛鬪하는 모습에서 산림의 선비가 지닌 氣概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산림 선비의 遊山 태도를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퇴계는 「書曹南冥遊頭流錄後」의 말미에 “다만 그 節拍氣味の 所從來와 같은 것에는 약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후세 사람 중에 반드시 능히 분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節拍이란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규율적인 체계, 理路란 뜻이다.²⁵⁾ 다시 말해 남명의 遊山은 완치 理路를 중시하여 遊玩의 여유를 갖지 못한 氣味가 있다고 퇴계는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퇴계가 「陶山記」에서, 산수를 즐기는 자 가운데 道義를 좋아하여 심성을 기르는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糟粕만을 본 것이라고 경계하였던 것과 상통한다. 퇴계는, 玄虛虛誕을 좋아하여 潔身亂倫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배격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산수의 遊玩에서도 道義만 숭상하여 심성을 기르는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다. ‘약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후세 사람 중에 반드시 능히 분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指斥을 꺼린 표현 속에, 실은 퇴계로서는 남명의 遊山 태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가탁되어 있는 것이다.

24) 「書曹南冥遊頭流錄後」. “曹南冥遊頭流錄, 觀其遊歷探討之外, 隨事寓意, 多感憤激昂之辭, 使人凜凜猶可想見其爲人. 其曰一曝之無益, 曰向上趨下只在—舉足之間, 皆至論也, 而所謂明哲之幸不幸等語, 眞可以發千古英雄之歎, 而泣鬼神於冥冥中矣. 或以其尙奇好異, 難要以中道爲疑者. 噫, 自古山林之士, 類多如此, 不如此, 不足以爲南冥矣. 若其節拍氣味所從來, 有些子不可知處, 斯則後之人必有能辨之者. 嘉靖庚申孟春, 眞城後人景浩, 書于溪上書舍.”

25) 「朱子語類」 권44에 “蓋其言合節拍, 所以雖言而人不厭之”라는 용례가 보인다.

世路에 나간 것을 후회하고 隱逸의 생활 속에서 산수를 遊玩하겠다는 태도는 「어부가」를 애송한 점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書魚父歌後」에서 되게는

우리 龔巖 李先生은 나이가 일흔을 넘자, 즉시로 인끈을 내던지고 高厲하게 汾水의 구비에 退閑[관직을 버리고 유유자적함]하여, 누차 疇昔을 받아도 起伏하지를 앉으면서, 富貴를 浮雲과 같이 여기고, 雅懷를 物外에 부쳐, 늘 작은 배와 작은 노로 烟波 속에서 嘯傲하고, 釣石의 위를 徘徊하여, 갈매기와 親狎하여 忘機하고, 물고기를 보고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시니, 江湖의 즐거움에 있어서 가히 그 眞境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²⁶⁾

라고 하였다. 세속 특히 관직을 벗어난 隱逸의 생활 속에서 자연과 혼용·합일하는 것이 至高의 경지로 상정되어 있다. 퇴계가 주희의 시문 가운데 「齋居感興詩」, 「武夷權歌」나 廬山諸作을 좋아하여 「書晦菴詩帖後」을 남긴 것도 隱逸의 생활을 구가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나는 젊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늙어서는 성취하였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도리어 몸에는 질병이 많아 세상에 소용이 닿지 않으므로, 그래서 서너해를 옛 산에서 投閑하는 여가를 얻었다. 집에 마침 晦菴의 여러 책이 있는데, 神氣가 조금 맑아지는 기회를 엿보아 문을 닫아 걸고 삼가 읽어보매, 비록 무엇을 말하는지 옹게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가만히 사랑하여 너무도 기뻐하였다. 마침 그 때에 烏川의 金愼仲이 즐겨 방문을 해주어 바야흐로 그 공부한 바를 함께 參訂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내가 召命을 받들어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와서 대단히 골몰하여야 하였으므로, 옛날에 읽은 책들은 감감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옛 산을 그리는 마음은 朝夕間도 그만둘 수 없었다. 하루는 김신중이 空帖을 부쳐와, 晦菴의 齋居感興詩와 廬山의 여러 시들을 베껴달라고 청하니, 김신중은 내가 병들어 있고 마음 속에 그리는 바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나를 일으켜 감분하게 하는지! 베개를 밀치고 권태를 떨쳐버리고는 이상과 같이 졸렬하게 베낀 뒤에 돌려주노라. 아아, 선생을 雲谷·廬山·武夷의 사이에서 모시지를 못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나의 옛 산으로 돌아가 한, 두 동지와 서실에서 고요하게 거처하는 속에서 선생의 도를 歌詠하여 천하의 眞樂을 찾아 즐거워하여서, 옛 도를 좋아하면서도 쇠한 시대에 태어난 나의 근심을 잊을 수 있을런지!²⁷⁾

26) 「書魚父歌後」. “惟我龔巖李先生, 年踰七十, 卽投絃高厲,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傲於烟波之裏, 徘徊於釣石之上, 狎鷗而忘機, 觀魚而知樂, 則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眞矣.”

27) 「書晦菴詩帖後」. “余少而失學, 老而無聞, 願身多疾病, 無所用於世, 因得數年投閑於故山, 家有晦菴諸書, 伺神氣稍清, 卽閉門而伏讀之, 雖不識其何謂, 而心竊愛之欣欣焉, 于時烏川金愼仲, 肯來相顧, 方欲與之參訂其所學焉, 未幾, 余承召命, 狼狽西來, 隨分汨沒, 舊所讀書, 茫不記一, 而思山之念, 昕夕不置, 一日, 愼仲見寄以空帖, 要書晦菴齋居感興詩及廬山諸作, 愼仲其知余病懷之所在歟, 何其能使余起感也, 遂推枕撥倦, 拙寫如右而還之, 噫, 既未得從先生於雲谷廬山武夷之間矣, 安得還吾舊山, 與一二同志, 齋居靜裏, 歌詠先生之道, 以求天下之眞樂

퇴계는 대상에 대한 욕구와 집착에서 비롯될 '玩物喪志'를 경계하고, 無欲自得과 清明高遠의 정신세계를 지향하여, 그것을 眞樂으로 여겨 희구하였다.

4. 敦實恪謹

퇴계가 지은 「自省錄小序」는 서발문이면서도 퇴계의 箴誠 생활을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다. 퇴계는 58세 되던 1558년(명종 13)에 왕복 편지 글 가운데 規戒로 삼을 만한 것들을 간추려 『자성록』으로 엮었는데, 이 小序에는 진지한 생활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몸소 실천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였다. 지금 친구들과 더불어 강구하여 편지를 주고 받은 것들은, 그 발설한 것이 부득이하여 그리하였더라도 이미 부끄러움을 차마 이기지 못한다. 하물며 이미 말한 뒤에, 저쪽은 잊지 않았는데 이쪽은 잊어버린 것도 있고, 양쪽다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비단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거의 기탄하는 바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니, 너무나도 두렵다. 간간이 옛 글상자를 뒤져 손수 베껴두는데, 원고가 있는 것은 책상머리에 두고 때때로 열람하여 자주 반성하기를 마지 않는다. 원고가 없어 기록할 수 없는 것도 그 가운데에는 있다. 하기가 아무리 편지를 많이 저록하여 책을 이룬다고 해도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²⁸⁾

퇴계는 守靜을 중시하였다. 靜坐의 學이 二程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보되, 명대의 醫閻·白沙·陽明의 靜學이 불교의 영향으로 올바름을 잃었다고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즉 퇴계는 「抄醫閻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에서 그 확연한 구분을 시도하고, 그 자신의 靜學이 楊濂의 『伊洛淵源錄』에서 발명된 정좌설과 상통한다는 점을 밝혔다.

퇴계는 외면적으로 정제되고 엄숙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내면적으로도 통일되고 각성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靜의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起居行事 속에서 수행할 일을 마음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수양론을 곳곳에서 주장하였다.²⁹⁾ 이것은 자기회귀를 통해 내적 평정을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퇴계의 靜

而樂之，庶幾忘吾好古生晚之憂也耶 嘉靖壬子，退溪書”

28) 「退溪集」속집 권8 「自省錄小序」 “古者，言之不出，恥躬之不逮也 今與朋友講究往復，其言之出，有不得已者，已自不勝其愧矣。況其言之後，有彼不忘而我忘者，有彼我俱忘者，斯不但可恥，其殆於無忌憚者，可懼之甚也。間搜故篋手寫書，藁之存者，置之几間，時閱而屢省於是而不替焉 其無藁不錄者，可以在其中矣。不然，雖錄諸書，積成卷帙，亦何益哉?”

29) 이틀테면 「退溪集」 권45의 「答禹景善問目」에서 “存心端坐，固爲居敬，起居行事，心專一則亦豈非居敬者乎? ……學者靜中固當存心端坐，而動處尤當致力，遇這事而心在這事，遇那事而心在那事，然後可謂敬矣.”

學은 교만하거나 뻔쪽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추구하였다. 그렇기에 遊山遊水를 하여도 “奧妙함을 즐기고 幽靜함에 탐닉하여도 玄虛함으로 떨어지지 않고, 奇怪를 좋아하고 詭璋를 숭상하여도 荒誕에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를 지켰다. 「陶山記」에서는 산수를 즐기는 자 가운데 玄虛高尚을 좋아하는 자는 潔身亂倫하여 鳥獸同群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퇴계는 자연 속의 맑은 놀이를 통하여 청명한 마음을 추구하여, 자유로운 정신을 구가하였다.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은 흥이 일어나고 정이 발동하면 저절로 노래를 이룬다. 퇴계는 시문에서의 喪志와 遊蕩을 경계하면서도 ‘흥이 일어나고 정이 발하면’ 시로써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때의 흥과 정은 추한 것이 아니다. 속음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맑은 것이다. 65세 되던 해에 강호의 즐거움을 구가하려는 의도에서 제작한 「陶山十二曲」에서도 유순한 심정이 자연스레 유출되어 있다. 퇴계는 그 서문에서, 가곡을 통하여 蕩滌鄙吝하고 感發融通할 수 있다고 여겨 가곡의 제작에 관심을 가졌는데, ‘矜豪放蕩, 褻慢戲狎’의 뜻을 담은 한림별곡을 배격하였고 藏六堂 李鼈이 “遭濁世, 潔身遠引, 忘世累”³⁰⁾하여 ‘潔身傲世’를 자만함으로써, 그의 ‘六歌’에는 ‘玩世不恭’의 뜻이 들어 있어 ‘溫柔敦厚’의 實이 적다고 하였다.³¹⁾ 또 巖巖 李賢輔의 ‘어부가’가 한시를 集句하고 ‘俚俗之語’로 연결한 것과는 달리, 주로 국어를 사용하여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자만을 버린 유순한 정신을 ‘온유돈후’라 규정하였다. 俗氣와 作爲性を 배제한 순수한 정신을 지향하였으니, 그의 온유돈후는 ‘敬’ 공부와 관련이 있다.³²⁾

퇴계는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에서

아아, 나와 내 벗은 유독 朱夫子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 幔亭峯 아래서 배를 사서 石門塢 앞에서 노를 멈추고 仁智堂에 올라 나날이 講道하시는 곁에 모셨다가 물러나와서는 여러 문인들과 함께 隱求巖과 觀善齋 사이에서 詠歌하고 周旋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斯道의 정화를 얻지를 못하였도다.³³⁾

라고 하여 好古晚生의 근심을 토로하였다. 이 글은 주희에 대한 맹종을 선언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도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先覺의 지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도학의 세계에 優游涵泳하려는 求道的 의지를 밝힌 것이다.

30) 許穆, 「藏六堂六歌識」(『記言』 별집 권10), “遭濁世, 潔身遠引, 忘世累, 則有之. 亦足以想見魁梧傑出, 高蹈拔俗, 冷然有箕穎之風.”

31)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又非君子所宜尚. 惟近世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陶山十二曲跋』, 『退溪集』 권43.)

32) 崔珍源, “陶山十二曲과 敬,” 『增補版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成大出版部, 1988), p.39.

33) 噫, 吾與吾友, 獨不得同其時, 買舟幔亭峯下, 輟棹於石門塢前, 獲躋仁智堂, 日侍講道之餘, 退而與諸門人, 詠歌周旋於隱求觀善之間, 以庶幾萬一也.

5. 考據覈實

퇴계의 서발문은 記事文으로서 지녀야 할 고거핵실의 요건을 충실하게 지켰다. 「天命圖說後敘」·「心經後論」·「白沙詩教傳習錄抄傳因書其後」·「抄醫閻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後」·「朱子書節要序」·「啓蒙傳疑序」 등은 사상에 관한 논변문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새삼 운운할 것이 없지만, 다른 여러 서발문들은 서적의 성격, 善本의 선별과 교감과 관련하여 세밀한 考覈을 수행하였다. 「跋金景嚴幾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은 그러한 태도가 잘 드러난 글 가운데 하나다. 이 글은 平康縣監 金幾(자는 景嚴)이 주희의 七君子贊과 箴銘類 및 棲息講道 관련의 시문을 초록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 지은 발문으로, 考亭·竹林精舍·白鹿洞書院 등의 원근과 棲息 시기를 논변하여 '便於 觀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선생이 처음에 建寧府 崇安縣 五夫里的 屏山 아래 潭溪 가에 처음 서식처를 건립 하였으니, 이른바 "지난 40년전 潭溪의 일을 회상하니, 잘생긴 봉우리들이 무수히 창 앞에 열하였었지"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乾道 6년 경인(1170), 선생의 나이 마흔 하나에 晦菴을 建陽 蘆峯 꼭대기, 雲谷 가운데 세웠으니, 崇安縣에서부터 서남쪽 팔십여 리에 있어서 왕래하며 서식하였을 따름이지 항시 거처한 것은 아니었다. 이 두곳은 모두 閩中의 지역이다. 淳熙 6년 기해(1179), 선생의 나이 오십에 처음으로 南康軍의 지현으로 赴任하여 白鹿書院을 흥건하고, 삼년의 임기가 차서 돌아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白鹿洞에 가지를 앓았다. 대개 南康은 江東에 속하여 閩中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재임기간 중에 조정에 청하여 백록의 洞主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회보가 없었으므로 다시 가 볼 연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순희 10년 계묘(1183), 선생의 나이 쉰 넷에 다시 武夷精舍를 지었다. 韓元吉의 精舍記에 "元晦가 五夫에서 살았는데, 武夷에서 一舍 정도의 거리로 가까웠다. 그 外圃로 말하면 틈 있을 때마다 가서 노닐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光宗 紹熙 2년(1191)에 선생의 나이 예순 둘에 漳州에서 돌아와 建陽의 同由橋에 우거하면서, 비로소 考亭에 집을 지었다. 五夫에서부터 이사하여 온 뒤에 죽림정사가 이에 이루어졌다. 대개 이사한 지 9년만에 선생이 易箴하였으니, 향년 쉰 하나였다 34)

퇴계의 서발문은 記事의 대상인 詩歌集이나 서적의 善本, 작자와 편찬자의 문

34) 先生初居建寧府崇安縣五夫里屏山之下潭溪之上, 所謂"憶往潭溪四十年, 好峰無數列窓前"者也. 乾道六年庚寅, 先生年四十一, 作晦菴於建陽蘆峯之巔, 雲谷之中, 在崇安西南八十餘里, 往來棲息而已, 非恒處, 皆閩中也. 淳熙六年己亥, 先生年五十, 始以知南康軍赴任, 興建白鹿書院, 三年秩滿而歸, 自是不復至白鹿洞. 蓋南康屬江東, 距閩中絕遠, 當在任日, 請於朝, 願爲洞主, 而不報, 則固無緣再至矣. 十年癸卯, 先生年五十四, 又作武夷精舍. 韓元吉精舍記, "元晦居于五夫, 在武夷一舍而近, 若其外圃, 暇則遊焉"云. 至光宗紹熙二年, 先生年六十二, 歸自漳州, 寓建陽之同由橋, 始築室考亭, 自五夫而遷居, 竹林精舍於是作焉. 蓋遷居後九年, 而先生易箴, 享年七十一矣.

제, 서적의 編次와 目次 등에 세심한 주의를 쏟았다. 즉 퇴계는 「書漁父歌後」에서 어부가의 기원, 그 唱詞의 전승에 대하여 소상한 논증을 행한 바 있다. 또한 「延平答問後語」에서는 朴希正이 가지고 있던 『延平答問錄』 2권을 저본으로 손수 傳寫·讎校하였고 本錄의 錯簡과 誤字를 釐正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서

다만 병들고 고단하며 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論語』·『春秋』 등의 講說 條 가운데 行文만 많고 실천에 절실하지 않은 것은 다만 그 조목만을 들고 그 行文은 전사하지 않았으며, 『性理大全』 등의 책에 보이는 것은 다만 某書에 보인다고, 注書에 撮入하기도 하고 上面에 挑出하기도 하였다. 이래서 책이 도무지 온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부끄러울 따름이다.³⁵⁾

라고 하여, 자신이 선본을 편하고 간행하기 위해 考據覈實에 공을 쏟지만 결코 문헌 자체의 집성에 골몰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다. 『연평답문』의 조목 가운데 실천에 절실한 것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행문을 전부 전사하는 일을 한 것은 그때문이었다.

「書易範諸圖屏後」에서는 黃孝恭(자 敬甫)이 『易學啓蒙』과 『皇極經世書內篇』 가운데 十圖에 周敦頤의 「太極圖」와 황효공 자신의 方位圓圖를 병풍에 그린 것을 두고, 황효공의 방위원도가 실은 鮑雲龍의 『天原發微』 가운데 있는 圖와 같으며, 포운룡의 圖는 실은 先天圓圖와 같되 모양만 다른 것일 따름이라는 논증을 더하였다. “敬甫가 실은 鮑의 책을 보지 못하고서 그 圖를 그린 것이라면 경보가 自作하였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일단 황효공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 (포운룡) 圖는 즉 선천원도이되 모양만 다를 따름이니 創建이 아니다”라고 하여, 도설의 선후 관계를 엄중하게 논하였다.

1562년(명종17)에 『傳道粹言』을 선산에서 간행하게 되었을 때 「傳道粹言跋」을 지어 「語錄」의 내원에 대하여 논하고 『전도수언』의 간행 경위를 밝힌 뒤, 『전도수언』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였다. 『전도수언』은 1518년(중종13) 11월22일에 金安國이 明에서 貿來해와서 헌상한 書目 가운데 들어있는데,³⁶⁾ 이 때에 이르러 그 간행이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퇴계의 발문 전문을 보면 ‘어록’의 출현과 『粹言』의 성립, 李楨과의 校讎 사실과 간행 경위, 『粹語』의 작자 문제, 독자들에 대한 바람 등을 단계별로 간결하게 논하였다.

35) 但以支離頓德，精力不逮，其『論語』·『春秋』等講說之條，文多而不切於行者，或只舉其條，而不傳其文，其在『性理』等書者，只云見某書，或撮入注書，或挑出上面，書殊未爲全書，是爲愧懼耳

36) 「語孟或問」·「家禮儀節」·「古表精粹」·「傳道粹言」·「張子語錄」·「經學理窟」·「延平問答」·「胡子知言」 등의 冊을 올리고 「古表精粹」以上 三種의 印頒를 請하여 왕의 允허를 얻었다. 「중종실록」 13년 11월 辛酉의 기록 참조.

① 語錄의 체제는 옛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程門의 諸子가 師說을 기록함으로써 비로소 있게 되었다. 어찌 문장을 다듬는 사람이 문자나 어구를 바꾸고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이 암송하고 학습하는 것을 두고 말하면, 그대로 기록하여 산만해서 문체가 없는 것이 어찌 문장을 다듬어 찬란하게 문장을 이룬 것에 견줄 수 있으랴. 세상에 『粹言』이란 책이 있어서, 대개 河南 兩夫子(二程)의 설로서 語錄에 산견되는 것을 취하였는데, 번다한 것을 줄여서 간략히 하고 질박한 것을 윤색하여 문장을 이룬 것이다. 저 당대의 여러 사람들이 비록 들은 것을 친히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이 한 사람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혹은 어구는 제대로 기록하였지만 그 취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그 취지는 제대로 이해하였으나 그 언사는 올바르게 기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지금 點化를 거치자, 앞서 질박하던 것이 변하여 문체가 나게 되고 잡박하던 것이 精粹로 귀착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도리를 전하는데 비익이 있고 암송하고 익히는데 편하다.

② 嘉靖 庚申年(1562)에 내 친구 泗川 李剛而 군이 이 東都에 수령으로 오자, 礪城尉 宋寅께서 이 책을 내어주면서 刊行을 위촉하셨다. 그런데 그 책이 아주 刑缺이 많아, 李君이 외람되게도 나에게 서진을 주고받으면서 校訂을 하고는, 마침내 다른 책들과 함께 監司 南宮忱 공에게 청하여 걸의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刊刻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功力이 끝나게 되매, 東魯의 선비들 가운데 정말로 斯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얻어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이 또 있겠는가.

③ 그런데 이 책이 이루어진 것은 南軒(張栻)의 서문에 따르면 龜山(楊時)에게서 나왔다고 하였으나, 月湖 楊公(明의 楊廉)은 아마도 政堂(政政堂 程龍)의 책이 아닌가 하였다. 지금 내가 보기에, 만약 龜山에게 실지로 이 책이 있었고 南軒이 이렇게 類編하였다면, 어찌서 朱門의 議論 가운데 이 책에 관하여 한 글자도 언급한 것이 없단 말인가? 더구나 『南軒文集』에도 이 서문이 없으니, 月湖의 말이 올바른 듯하다. 그리고 이 책의 卷首에 이른바 '傳道綱領與傳授'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름을 적지 않았으니, 이것은 더욱 의심이 없을 수 없다.

④ 내 생각에, 오늘날의 독자는 다만 이 책이 斯道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만 살피고 스스로 그 취지를 터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述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先儒들이 확정한 바가 없으니, 지금 억지로 억측하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뒷날의 군자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³⁷⁾

37) ① 語錄非古也. 至程門諸子之記師說也. 始有之. 豈不以修辭者易差直記者無失也耶? 雖然自學者誦習而言之. 直記之漫爾不文. 又豈若修辭之粲然成章者乎? 世有粹言之書. 蓋取河南兩夫子之說見於語錄者. 約繁而就簡. 潤質而成文者也. 彼其一時諸人. 雖親記所聞. 然記者非一手. 或得其句. 不得其意. 或得其意. 不得其辭. 今一經點化. 而向之質者變而文. 駁者歸于粹. 信乎其有裨於傳道. 而便於誦習也. ② 嘉靖庚申歲. 吾友泗川李君剛而. 尹茲東都. 礪城尉宋公寅出是本. 囑以刊行. 顧其爲書頗多刑缺. 李君不辱與混往復校訂. 乃並與他書. 而請于監司南宮公忱. 令與旁郡分刻焉. 至是功告訖. 使東魯之士. 苟有志於斯學者. 皆得以與有聞焉. 幸孰大焉. ③ 抑是書之作. 以南軒之序. 則謂出於龜山. 而月湖楊公則疑爲政堂之書. 自今觀之. 若使龜山實有此書. 而南軒之類編如是. 則何故朱門議論無一字及之耶? 況南軒文集. 亦無是序. 則月湖之言. 宜若得之. 而今其書首. 又有所謂傳道綱領與傳授. 而不著其姓名. 是又不能無疑者. ④ 混竊以爲. 今之讀者. 但當觀其書之於道何如. 而自得之可也. 至於述作之人. 先儒之所未定者. 今不必強揣而臆斷之. 不知後之君子. 又以爲何如也.

이 글에서 퇴계는 『粹語』의 작자 문제를 논하여 楊時·張栻述作說을 비판하고 程龍編纂說에 일단 동조하였으나, 더 깊이 그 문제를 천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책이 斯道에 보이드는 바가 있을 것이므로 善讀者의 자세를 취하라고 후학들에게 권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문헌고증이 고증을 위한 고증을 일삼지 않고 義理의 발명을 통하여 篤行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였음을 잘 말해준다.

『書啓蒙圖書切要後』는 대단히 짧은 글이지만, 그 短幅을 이용하여 『계몽도서절요』라는 책의 내원과 그 가치를 적실하게 논하였다. 즉 먼저 『계몽도서절요』는 思齋 金正國의 嗣子 金繼趙가 소장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밝히고, 김정국의 문인 鄭之雲의 말을 인용하여, 이 도설이 趙有亨으로부터 慕齋(金安國)와 思齋에게 전수되었으며, 조유형은 모재와 사재의 從母夫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퇴계는 이 책이 『역학계몽』 등의 책에서 '搯成'한 것이지 스스로 창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이 책이 '初學之指南'일 수 있기에 전하는 것이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서발문에서 善本의 선정이나 시문집 및 서적의 내원에 대하여 考覈을 철저히 한 퇴계는 서적의 간행과 관련하여 늘 세심한 주의를 쏟았다. 퇴계는 1553년(명종 8)에 淸州 牧使였던 李楨이 蔡模 注 『齋居感興註解』를 저본으로 『文公朱先生感興詩』를 간행하면서 주희의 다른 여러 시들과 陳普의 『武夷權歌注』를 합본하여 목판 인쇄하였을 때, 이듬해(1554)에 판본의 일부 편차를 개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토록 하였다. 그 때 퇴계가 서한과 함께, 「城南二十詠」·「百丈山六詠」·「雲谷二十六詠」 등 모두 52수를 計行排書하여 그것들을 개각본에 첨입하는 방법까지 지시한 別紙는 세밀한 그의 성격을 여실하게 보여준다.³⁸⁾

제 생각으로는 큰 고을의 역량으로 볼 때 아예 改板하려 한다 해도 불과 4, 5板의 일일 뿐이니 개판하는 것이 무어 어렵겠습니까? 다만 舊刻에다 新刻을 이어 배열하여 행을 맞춘다면, 어렵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行數를 계산하여 안배하여 적어 보냅니다. 「宿休庵」, 一律은 3행이 비는 것을 보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다른 어려운 일이 없다면 제 排書에 따라 改刊하심이 어떠할는지요? 만일 이 다섯 板만 개간하고 나머지는 그저 張數의 一, 二 숫자만 고쳐 그대로 쓴다면, 功費가 그다지 들지 않으면서 서적은 또 完書가 될 수 있으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또 「濯淸」, 一絶은 본디 「城南二十詠」의 하나인데, 개판된 책에서는 「武夷」시의 끝에 두었으므로, 얼핏 보면 「武夷」시인 줄 오인하게 되므로 역시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城南」시 속에 두고 「武夷洞天」, 一絶을 취하여 빈 곳에 填刻한다면, 그 두 시가 모두 원래의 부류를 따르게 되므로 어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鑄字跋」, 一張³⁹⁾은 제 생각으로는 함께 刻板할 필요가 없습니다. 빼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卷末 題識의 끝에 '君子云, 吁, 謹識'이라

38) 을묘년의 2차 개정본 『문공주선생감흥시』(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권말에 붙어 있다.

39) 庚子字本 蔡模 注 『齋居感興』의 권말에 붙어 있던 卞季良의 鑄字跋.

하신 것은 여기서는 그다지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語勢가 조금 局促한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博學君子改正云’이라 고치고서 ‘吁’字를 빼버린 뒤 곧바로 그대의 姓名을 기록하여 某謹識라고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지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전에 張南軒(張栻)이 『程集』(二程全書)를 각판하여 온당하지 못한 곳이 있다. 朱子가 극력 개정을 요청하였고, 呂東萊(呂祖謙)이 『白鹿洞書院記』를 지어 온당하지 못한 곳이 있다. 주자가 또 일일이 지적하여 개정을 요청한 사실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前賢께서 德業이 나날이 盛하여 聲烈이 영원히 전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바로 그 점을 그대에게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⁴⁰⁾

퇴계가 서발문에서 치밀한 考據覈實을 행한 것은 뒷날 퇴계 문하에서 鶴峰 金誠一을 중심으로 한 영남 좌파가 문헌학 학풍을 열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다.⁴¹⁾ 김성일이 나주목사로 있던 시절에 『聖學十圖』·『朱子書節要』·『自省錄』·『儀禮圖』·『鄉校禮輯』 등의 책도 간행하고⁴²⁾, 퇴계가 自選한 『溪山雜詠』을 간행한 것은 퇴계 학풍의 영향이다.⁴³⁾

6. 맺는말

이상에서 퇴계가 중년 이후에 쓴 서발문을 중심으로 그 求志의 정신과 實事求是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퇴계는 내면의 절실한 요구 없이 남의 청탁으로 서발문을 선뜻 써주지는 않았

40) 鄙意以大州事力, 苟欲改圖, 不過四五板工夫, 何患難改? 恐必以新舊刻相接處排行, 難適爲難, 故如右計行排書而送, 其「宿休庵」一律, 所以補三行之闕者耳. 如無他難事, 須依此改刊何如? 若刊此五板, 其餘則只改張數一二字而仍用之, 功費不多, 而書可爲完書, 豈不好哉? 且「濯清」一絕, 本「城南二十詠」之一, 而今編在「武夷」之末, 使初見者誤認爲「武夷」之詩, 亦爲未穩. 須去之以置「城南」詩中, 而取「武夷洞天」一絕, 填刻其空處, 則庶兩詩皆從其類, 無乃恰好乎? 「鑄字跋」一張, 亦不須并刻. 鄙意亦去之何如? 如卷末自題識之末, 「君子云, 吁, 謹識,」此處雖無大害, 然語勢少似局促. 澆意欲改曰「博學君子改正云,」而去一「吁」字, 直書公姓名曰「某謹識,」如此則無病矣. 如何? 率易冒告, 甚知不韙. 然嘗見昔張南軒刻「程集」有未穩處, 朱子力請改之. 呂東萊作「白鹿洞書院記」有未穩處, 朱子又一一指出請改. 此前賢所以德業日盛, 而聲烈傳於久遠者, 敢不有望於公也耶?

41) 柳鐸一,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鶴峯系派를 中心으로—,” 『退溪學研究』2집(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 李完栽, “嶺南學派에 있어서 鶴峯先生의 位置,”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鶴峯先生紀念事業會, 1993).

42) 「儀禮圖」는 주자의 高弟 楊復이 지은 17권의 책이다. 『鄉校禮輯』은 학봉이 선조 10년(1577)에 謝恩兼改宗系奏請使 書狀官으로 북경에 갔다가 오면서 1질을 구입하여 온 것이다. 학봉은 그 가운데 「童子禮」만을 취하여 子姪과 門生을 가르쳤다. 율천도 학봉에게서 「鄉校禮輯」을 빌어다 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金彥鍾, “鶴峯先生의 禮學,” 『鶴峯金誠一先生殉國四百周年紀念論文集』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기념사업회, 1993), p 192-5 참조.

43) 줄고, “錦城開刊『溪山雜詠』과 庚子本『退溪文集』의 간행 경위에 대한 일 고찰,” 『계간서지학보』19(한국서지학회, 1997.1).

다. 남을 위해 쓴 서발문에서도 상대에 대한 권계의 뜻과 자기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늘 드러내었다. 그리고 퇴계는 서발문에서 역사를 논하거나 당대의 인물을 論定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遊山錄에 대한 발문이나 詩歌集과 詩帖에 대한 서발문, 주자학 관련 서적의 抄錄 및 刊行 경위를 밝힌 서발문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뜻을 밝히고 眞知에로 나아가는 지성의 운동을 담았다.

퇴계는 學問義理一段氣象을 중시하여 문학을 도학의 하위에 위치시켰으나, 興求情適·樂志長吟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온유돈후의 마음 상태를 시로 담아내려고 하였다. 潔身傲世하지 않는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세계를 온유돈후로 보았으니, 尊德性을 중시하고 俗氣와 作爲를 배제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處心制行에서 疏達曠坦之意보다는 收斂凝定之功을 쌓고자 하였던 태도와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정신은 그의 서발문이 恬退求志의 뜻을 담고 있고 敦實恪勤의 태도를 드러내며 考據覈實에서 신중을 기하면서 서적의 가치를 篤行과 연결시켜 논한 사실과도 맥이 통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